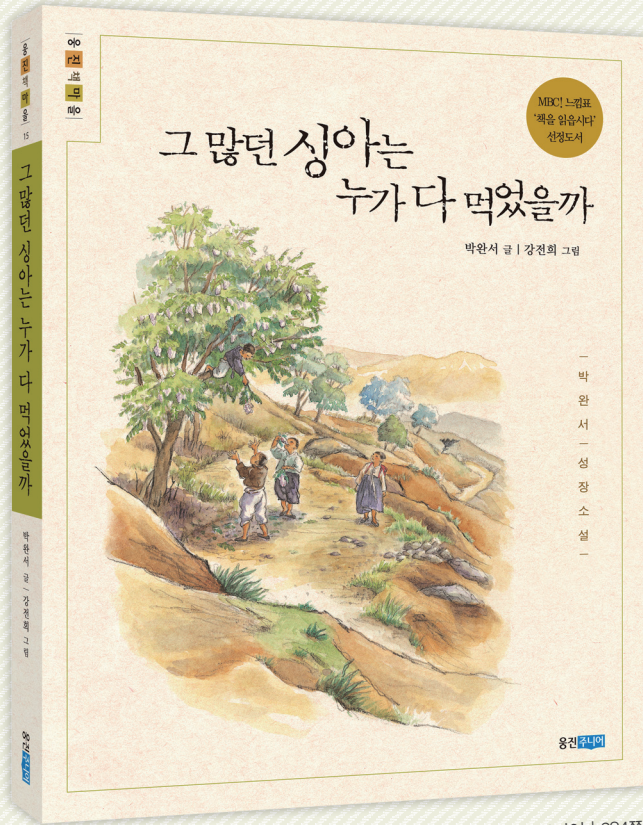


독서수업
지도안
학생용

초등학교 5학년

책을 읽고 생각을 넓혀요



박완서 글 | 박완서 그림 | 웅진주니어 | 284쪽

독서수업 주안점

- 읽기 경험과 느낌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태도 기르기
- 재미나 감동을 느끼며 작품을 즐겨 감상하는 태도 기르기
- 자신의 읽기 습관을 점검하며 스스로 작품을 찾아 읽는 태도 기르기
- 작품에 대한 이해와 감상을 바탕으로 하여 다른 사람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 작품에서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삶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태도 기르기

표지 탐색하기

이름 :

💡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를 읽기 전에 책 제목과 표지를 자세히 살펴봅시다.

1) 앞표지에 있는 그림은 어떤 모습인가요?

⇒

2) 앞표지의 책 제목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

3) 앞표지 등장인물들의 차림으로 보아, 이 책의 시대적 배경은 언제일 것 같나요?

⇒

4) 다음은 책 뒷표지에서 쓰여 있는 글입니다. ㉠을 국어사전에서 찾아 아래에 정리해 보세요.

나는 불현듯 싱아 생각이 났다.

우리 시골에선 ㉠ 싱아도 달개비만큼이나 흔한 풀이었다.

산기슭이나 길가 아무 데나 있었다.

⇒

어휘력 쑥쑥 키우기(1)

이름 :

1) 다음 뜻에 해당하는 낱말을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

[보기] 아버다리 고무되다 보신 뒷공론

낱말의 뜻	낱말
① 자신의 몸을 온전히 지킴.	
② 힘이 나도록 격려를 받아 용기가 나다.	
③ 일이 끝난 뒤에 쓸데없이 이러니저러니 다시 말함.	
④ 보잘것없는 사람이 제 댄에는 가장 만족하여 부리는 교만.	

2~3)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에서 발췌한 것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 아버지를 여윈 것은 세 살 때라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지만 할아버지가 중풍으로 무력해지신 걸 보는 것은 나에게 두 번의 아버지 상실이였다.

(㉠)으로 같은 해 엄마가 서울로 오빠 뒷바라지를 하러 떠났다.

· 내엄마는 내가 행여나 이 두 개의 주소를 헛갈릴까 봐 (㉡)했다.

(나) · 졸업식이 끝나자 단체로 또 신사참배를 하고 헤어진다는 것이다. 복순이와 나는 낭패스러운 눈길을 교환했다. 나는 그 애가 나하고 같은 심정이라는 걸 알아차렸다.

2) 아래의 뜻을 참고하여 (가)의 ㉠~㉡에 들어갈 한자 성어를 쓰시오.

⇒ ㉠ :

㉡ :

3) 한자 성어 ‘이심전심(以心傳心)’의 뜻과 관련 깊은 부분을 (나)에서 찾아 쓰시오.

- ㉠의 뜻 : 난처한 일이나 불행한 일이 잇따라 일어남을 이르는 말.
- ㉡의 뜻 : 몹시 두려워서 벌벌 떨며 조심함.

⇒

'나'의 서울 생활의 시작

이름 :

💡 다음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자식은 어떡하든지 서울에서 길러야 되겠다는 것은 아무도 못 말할 엄마의 숨은 신앙이었다. 엄마는 우리가 도회지에서만 살았어도 아버지가 그렇게 일찍 세상을 뜨지 않았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런 엄마의 생각엔 나도 훗날 철들고 나서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는 형제 중 체격이 좋고 잔병 한 번 치른 일 없는 건강체였다고 한다. 그런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복통으로 테굴테굴 구르는 것을 할아버지는 당신의 약방문에 의한 생약 한약 등으로만 다스리고, 할머니는 무당집에서 푸닥거리를 하는 사이에 마침내 기지사경에 이르렀다.

(나) 손가락점보다 더 강력한 게 통한 것처럼 어느 날 엄마가 홀연히 나타났다. 방학 때도 아닌 데 사전에 아무런 연락도 없이 돌아온 엄마를 보자 나는 무엇보다도 엄마도 나를 보고 싶은 걸 참을 수가 없었다는 걸 확인한 것 같아 마음이 놓였다. 그러나 엄마는 단지 내가 보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서울로 데려가려고 왔다고 했다.

“너도 서울 가서 학교에 가야지.”

(다) 나는 불현듯 싱아 생각이 났다. 우리 시골에선 싱아도 달개비만큼이나 흔한 풀이었다. 산기슭이나 길가 아무 데나 있었다. 그 줄기에는 마디가 있고, 짙레꽃 필 무렵 줄기가 가장 살이 오르고 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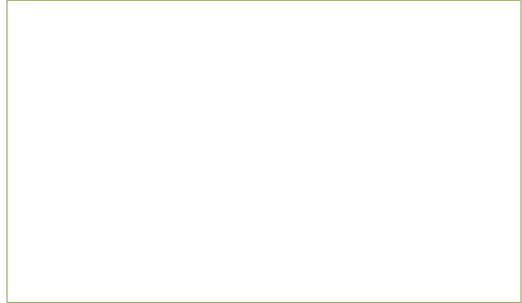
(라) 아무것도 모르는 엄마는 친척 집 대청마루에 높이 앉아 선생님을 맞았고 행랑어멈이 화체를 은빛으로 닦은 돗쟁반에다 반찬 내왔다. 그날을 무사히 넘긴 엄마는 안도의 숨을 쉬었지만 친척 집 옆에 산다는 아이는 나에게 오랫동안 화근이 되었다.

그날 이후 나는 그에 앞에서 기를 못 똬다. 그 애가 시키는 심부름은 뭐든지 했다. 고무줄을 나더러는 잡고만 있게 하고 혼자서만 깡충깡충 뛰어넘는 건 약과였다.

1) '나'의 엄마가 도회지에서의 삶을 결심하게 된 사건은 무엇인지 (가)를 참고하여 쓰시오.

⇨

2) '나'의 엄마가 박적골에 있던 '나'를 찾아온 이유를 쓰시오.



3)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소재를 (다)에서 찾아 쓰시오.

서울로 오게 된 '나'에게 고향인 박적골에서의 삶에 대한 그리움을 안겨 줌.

⇨

4) (라)에서 '나'가 느꼈을 심정을, '나'의 처지와 상황을 고려하여 서술하시오.

⇨

괴불마당 집에서의 생활

이름 :

💡 다음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주인 집 여자에게는 자기 자식 얼굴에 손톱 자국 난 것도 분했지만, 평소 누구하고 잘 어울릴 줄 모르는 아이가 특하면 그런 해코지를 하니 요새말로 하면 심각한 문제아로 보였을 것이다. 엄마한테 나중에 무슨 꼴을 보려고 자식을 그 따위로 가르치느냐고 동정 어린 악담을 했다. 그걸 옆에서 보고도 안 말렸다고 오빠까지 싸잡아 욕을 먹었다.

(나) 그러나 엄마는 내가 내 마음대로 편지를 쓰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엄마는 편지에는 일정한 틀이 있다고 믿고 있었고 거기에 어긋나는 편지를 탄 사람도 아닌 웃어른에게 드린다는 건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다) 엄마의 반일 감정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됐다. 할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상경하자 엄마는 오빠와 숙부에게 우리도 창씨개명을 하자고 재촉했다. 그건 나도 은근히 바라는 바였고 또 으레 그럴 수 있으려니 했다. 그러나 이번엔 오빠가 반대를 하고 나섰다. 여태껏도 견뎠는데 좀 더 견뎠 보자는 것이었다.

1) 다음 표에 제시된 결과를 일으킨 원인을 [조건]에 맞게 쓰시오.

[조건] 결과와 관련된 사건을 (가)를 참고하여 한 문장으로 요약하여 쓸 것

원인	→	결과
	→	'엄마'가 괴불마당 집을 사게 됨.

2) (나)에서 알 수 있는 '엄마'의 성격을 쓰시오.

⇨

3) (다)에 드러난, 창씨개명에 관한 가족들의 입장을 한 문장으로 서술하시오.

⇨

일제강점기 시대가 '나'에게 준 아픔

이름 :

💡 다음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긴 장대 끝에 창같이 생긴 날카로운 쇠붙이를 꽂고 다니면서 그걸로 천장, 아궁이, 벗짚 단, 갈잎 가리 등을 마구 찢러 보았다. 우리 마을은 아니었지만 이웃 마을에서 갈잎 가리 속에 숨었던 소녀가 그 창 끝에 옆구리를 찢렸다는 소문은 너무도 끔찍해 백주의 악몽이었다. / 소녀가 거기 숨은 까닭은 정신대 때문이었다.

(나) 벌써 몇 마을째 돌고 있다고 했다. 청년들은 그렇게 이 마을 저 마을을 돌면서 세를 불렀고 자기 마을 친일파 집을 때려 부술 때는 그 마을 청년은 나서지 않고 뒤에서 구경만 했다.

(다) 튼튼한 대문짝까지 우지끈 깨부수고 난 청년 중의 하나가 ㉠문패를 때서 패대기쳤다. 내가 어려서부터 익히 봐 온 할아버지의 성함이 쓰인 문패였다.

(라) 나는 뭐라고 목청껏 악을 쓰며 그 청년을 향해 돌진했다. 할아버지 서책으로 그릇을 만드는 걸 볼 때는 재미만 있었는데 문패를 패대기치는 건 왜 그렇게 참을 수가 없었는지 모를 일이다.

1) (가)의 시대가 일제 강점기임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낱말을 찾아 쓰시오.

⇨

2) 청년이 ㉠과 같이 행동한 이유는 무엇인지 (나)를 참고하여 쓰시오.

⇨

3) (다)~(라)의 상황에서 '나'는 어떤 심정이 들었는지 [조건]에 맞게 쓰시오.

[조건] '나'가 가치를 두고 있는, '문패'가 상징하는 의미를 포함하여 쓸 것.

⇨

‘나’에게 영향을 준 오빠의 좌익운동

이름:

💡 다음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하긴 대학의 좌익조직이 더 막강할 때였으니까 엄마가 오빠의 대학 진학에 한 가닥 희망을 걸었던 것은 뭘 너무 몰랐기 때문이다. / 결국 우리는 ㉠ 돈암동 집에서도 안정을 못 하고 6·25가 날 때까지 거의 일 년에 한 번꼴로 이사를 다녀야 했다. 신문로 집에서처럼 우리 집이 불온한 모의의 아지트가 됐다고 판단되는 즉시 엄마는 치를 떨며 발작적으로 이사를 결심했고, 어떤 때는 집에 있는 세간을 그냥 놔둔 채 야반도주를 해서 숙부네와 합쳐서 산 적도 있다.

(나) 메이테이가 돌아왔다. 메이테이 행사를 좌익에선 남산에서, 우익에선 서울 운동장에서 따로따로 편을 갈라 하는데, 우리는 학교를 결석하고 남산에서 하는 메이테이 행사에 꼭 참석하라는 지령을 받았다. 학교를 결석하고까지 남산에 갈 것인가는 선뜻 결심이 서지 않았다.

(다) 학교에다 전화를 걸어 줄 테니 어제부터 아팠던 걸로 하고 며칠 결석을 하라는 것이었다. 나는 비겁한 일인 줄 번연히 알면서도 엄마의 애원을 뿌리치지 못했다.

1) ‘엄마’가 ㉠과 같이 행동한 이유는 무엇인지 (가)를 참고하여 쓰시오.

⇨

2) 자신이 (나)~(다)의 상황에 놓인 ‘나’라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나’의 결정과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

‘나’가 겪은 6·25 전쟁

이름 :

💡 다음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국도는 특히 폭격이 심했다. 그래서 군대와 민간이고 밤에 이동하는 것 같았다. 몇 번이나 공습을 만난 발이나 논으로 뛰어들어 포복해 있다가 다시 걷곤 했다. 오빠가 의용군에 나간 건 틀림이 없었다.

(나) 시선은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불안하게 흔들리고, 작은 소리에도 유난스럽게 놀랐다. 잔뜩 겁을 먹은 표정은 무슨 소리를 해도 바뀌지 않았다. 따뜻한 음식과 잠자리도 그를 안정시키진 못했다. 밤에는 바람 소리, 쥐 부스럭대는 소리에도 놀라 한참을 못 잤다. 어디를 어떻게 무슨 꼴을 당하며 왔기에 그 꼴이 되었을까. 죽기를 무릅쓰고 사선을 넘은 무용담도 있으면만 말하지 않았다. 그런 흔적도 안 보였다. 오빠는 심한 피해망상을 앓고 있었다.

(다) 독립문까지 뻗어 보이는 한길에도 골목길에도 집집마다에도 아무도 없었다. 연기가 오르는 집이 어찌면 한 집도 없단 말인가. 형무소에 인공기라도 꽂혀 있다면 오히려 덜 무서울 것 같았다. 이 큰 도시에 우리만 남아 있다.

1) 의용군에서 도망쳐 온 ‘오빠’의 모습은 어떠한지 쓰시오.

⇨

2) (가)~(다)에 드러난 6·25 전쟁의 상황을 보고 느낀 점을 자유롭게 쓰시오.

⇨

2) (다)에서 자신이 ‘나’의 처지라면 어떤 심정이 들지 ‘나’의 처지에 공감하며 서술하시오.

⇨



정답과 해설

3쪽	<p>1) (예시답안)한 남자아이가 나무 위에 올라가 열매 같은 것을 따서 나무 아래에 있는 친구들에게 던져 주고 있고, 지나가는 여자아이가 그 모습을 보고 있다. 등</p> <p>2) (예시답안)'싱아'가 무엇인지 궁금했다. / '싱아'를 누가 다 먹었는지 궁금했다. 등</p> <p>3) 인물들의 옷차림이 저고리와 치마, 바지 등인 것으로 보아 현대의 이야기가 아닌, 일제강점기 때 쯤의 이야기가 담겨 있을 것 같다.</p> <p>4) 마디풀과의 여러해살이풀로 높이는 1미터 이상이며, 잎은 어긋나고 피침 모양으로 가장자리에 물결 모양의 톱니가 있다.</p>
4쪽	<p>1) ㉠ : 보신 ㉡ : 고무되다 ㉢ : 뒷공론 ㉣ : 아비다리</p> <p>2) ㉠ : 설상가상 ㉣ : 전전공공</p> <p>3) 그 애가 나하고 같은 심정</p>
5쪽	<p>1) ㉠ : 일소에 부치다. ㉡ : 옆친 데 덮친 격이다.</p> <p>2) ㉠ : 눈 ㉣ : 다리 ㉤ : 눈, 코</p>
6~7쪽	<p>1) 시골 사람들의 무지함으로 인해 아버지가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p> <p>2) '나'를 서울에 있는 학교로 보내기 위해서이다.</p> <p>3) 싱아</p> <p>4) (예시답안) 친척 집을 자기 집인 것처럼 행동하다가 그 사실을 친구에게 들켜 약점을 잡혔다. 그 때문에 속상하고 엄마가 원망스러웠을 것 같다. 등</p>
8쪽	<p>1) '나'가 주인집 아이와 싸운 일로 엄마와 오빠가 주인집 여자에게 욕을 먹었기 때문이다.</p> <p>2) 엄마는 규칙을 중요하게 여기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p> <p>3) '나'를 비롯한 식구들은 창씨개명을 찬성하는 반면, 오빠는 반대하고 있다.</p>
9쪽	<p>1) 정신대</p> <p>2) 해방 후 친일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이다.</p> <p>3) (예시답안) 비록 돌아가셨지만 집안의 큰 어른인 할아버지의 이름이 써 있는 문패가 패대기쳐져 자 '나'는 속상하고, 그 일을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분노했을 것 같다. 등</p>
10쪽	<p>1) 오빠의 좌익조직 생활에 대한 엄마의 거부감 때문이다.</p> <p>2) (예시답안) 무서운 시대이니만큼 나도 '나'처럼 정치적인 일과 관련해서는 선뜻 나서지 못했을 것 같다.</p>
11쪽	<p>1) 오몸과 정신이 피폐해진 채 돌아온 오빠는 피해망상을 앓고 있다.</p> <p>2) (예시답안) 평화로웠던 집들이 무너지고 건강한 사람의 정신을 앗아간 것으로 보아, 6·25 전쟁은 참혹하고 잔인한 것 같다.</p> <p>3) (예시답안) 전쟁으로 인해 모두들 피난을 가고 나의 가족들만 남아 있다는 생각에 무섭고 두려웠을 것 같다.</p>

응진주니어

값 7,500원



ISBN 978-89-01-04609-9
ISBN 978-89-01-03863-6 (세트)



KCC 마크는 이 제품이
공동안전기준에 적합
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주의
책 모서리에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